

“총선 승리로 폭정 막으라는 광주의 명령 기필코 받들겠다”

이재명 대표, 호남 민심 다지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땃밭’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5·18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을 촉구하며 본격적인 호남 표심 잡기 행보에 나섰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오는 4월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이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대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박정현 최고위원,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이병훈 광주시장 위원장, 송갑석 의원, 윤영덕 의원, 조오섭 의원, 이형석 의원, 이용빈 의원, 민형배 의원 등 광주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천준호 비서실장, 박성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현 정권 심판과 5·18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하며 총선에서 승리할 것을 다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올해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민주화의 성지이자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흔들리는 나라를 다시 세우라는 국민과 광주의 간절한 염원에 누구보다 큰 책임을 느낀다. 전력을 다해 그 명령을 기필코 받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월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일도 더는 미룰 수 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달 광주를 찾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이기도 하

교통 인프라·일자리 창출로 2030 청년세대 광주 유출 막아야

“5·18정신헌법수록 미룰수 없어...민주세력 분열은 윤정권 돕는것”

다”며 “지난 2년 동안 말로만 계속 반복한다. 권한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도 동의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구체적인 일정보를 제시하고 즉각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광주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 이행 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순유출을 기록했다”고 한다. 특히 20~30대 청년들의 유출 비율이 높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된다”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통문화 인프라 강화,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같은 실질적 조치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빛그린 산단의 활성화와 함께 미래차 국가산단 착공을 서둘러야 하겠다. 호남권역 내부의 교통망 정비와 더불어 타지역과의 교통망을 확충하는 문제도 시급하다”며 “국회가 지난달 광주대구 간을 연결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을 처리했는데, 정부는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문체부와 있는 제3지대 세력에 대해서도 견제의 발언이 쏟아졌다.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은 “호남에 신당 바람은 불지 않을 것”이라며 “광주는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민주개혁 세력이 어려울 때 한마음으로 힘

을 모아준다. 민주 세력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이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광주시민들은 2016년 안철수 신당 때 얻은 정치적 철학과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목표 때문에 민주당으로 뿔뿔 뿔쳐야 한다는 것이 대세다. 4월 총선에서 광주를 비롯한 호남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 태풍이 불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고위원회의 후 광주시 대표 시장인 서구 양동시장장을 찾아 상인연합회와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며 “집권 여당이 이런 식으로 가선 안 된다. 저희로서는 심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협장의 소상공인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인과의 면담 후 떡 가게, 분식 가게, 반찬 가게 등을 방문해 시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첫 일정으로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에 참배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오월 정신 이어받아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의 과제는 분명하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죽기를 각오하고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해 설 제수용품 구입하면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예비후보들 컷오프 앞두고 ‘합종연횡’

김성진·정재혁·최치현

광산을 단일화 합의

복합 문상필·정준호 공동 성명

6일부터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컷오프’ (공천 배제)를 앞두고 광주지역 예비후보들이 단일화 합의를 하는 등 ‘합종연횡’이 나사고 있다.

특히 ‘컷오프’로 경선 후보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경선 과정에 어떤 후보를 밀어주느냐에 따라 경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컷오프’ 이후 선거구별 ‘합종연횡’도 주목된다.

광주 광산을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김성진·정재혁·최치현 예비후보는 ‘현역 교체’를 주장하며 단일화에 뜻을 모았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30일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정책을 발표하는 등 단일화 가능성을 보였다.

세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지방분권시대를 이끌어갈 최고의 도시 광산을 위해 단일화의 길을 걷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세 예비후보는 광산구의 민의를 대표하기 위해 인물 교체가 꼭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꾸준히 단일화 협상을 해왔다. 현재 어떤 후보를 대표로 단일화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앙당 컷오프를 포함한 일선상의 사유로 중도 사퇴하더라도 단일화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단일화가 성립된 즉시 후보 선거사무소를 하나로 통합하고 단일화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세 예비후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정치인을 심판하고 다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다지며 손을 맞잡았다”며 “국가와 국민이 아닌 자신의 자리보전과 권력 싸움에 시간을 허비하고 정쟁만 일삼는 국회의원이 아닌, 한마음 한뜻으로 민생과 지역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광주 북구갑에 출마를 선언한 문상필·정준호 예비후보도 최근 공동 성명서나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 단일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남의 경우 현재까지 예비후보 단 단일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주·화순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구종근 예비후보와 순군구 예비후보의 지지자들이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인 신정훈 의원을 비판하면서 컷오프 이후 특정 후보 밀어주기 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컷오프 이후 예비후보 간 합종연횡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컷오프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경선 과정에 어떤 경선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경선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선 후보들 간 컷오프된 예비후보 모시기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선과정에서 결선 투표제가 도입된다면 3인 경선 선거구의 경우 1위 후보를 이기기 위해 2, 3위 후보가 힘을 모을 수도 있어 컷오프 이후 예비후보 간 합종연횡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일부 선거구의 경우 컷오프 이후 경선 탈락 후보가 경선 후보를 밀어주기로 하는 등의 이면 약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차피 컷오프되면 경선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컷오프 이후 합종연횡은 선거구별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국민의힘, 광주·전남 선거구 12곳 후보자 공천 신청

광주 6명·전남에 8명

국민의힘에서 광주·전남 선거구 12곳 중 12곳에 총선 후보자가 공천을 신청했다.

5일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1차 총선 후보자를 모집한 결과 광주는 선거구 8곳 중 5곳에 6명이 등록했다.

동남을 선거구는 문충식 전 동남을 당협위원장과 박은식 전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2명이 등록해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전남은 선거구 10곳 중 7곳에 8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선거구는 새누리당 당 대표 출신인 이정현 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장과 세계문화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권성열 현 부경대 교수 등 2명이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국민의힘 사도당은 공천 신청자 2차 모집을 통해 나머지 광주 3곳, 전남 3곳의 후보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중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중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집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테린인더스트리㈜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기업부정부청장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형 모범납세자 표창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테린인더스트리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